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6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4. 24(금)	담당부서	산업기술시장혁신과
담당과장	이종석 과장(044-203-4540)	담 당 자	김수희 사무관(044-203-4543)

제조기업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

- 2천억원 규모 사업비 예타 통과…컨설팅·연구개발 지원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우수기술 보유 제조기업이 **사업화 컨설팅・R&D 지원**을 통해 **기술사업화에 성공하고, 신사업 분야로 진출**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**"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"**이 **총사업비 1,925억원 규모**로 **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**하여 '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.

□ 동 사업은 '05년부터 '20년까지 6,758억원(국비 4374억)을 투입하여 1,037개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한 산업부의 대표적인 **기술사업화** 프로그램인 **'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'의 후속사업**으로,

○ **R&D 결과물이 기업성장과 산업혁신 등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**하고, **우수기술 활용 촉진**과 **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**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
○ 특히 **기술사업화 지원**이라는 기존 사업의 목적을 유지하되, 「**제조업 르네상스**('19.6월)」 전략의 후속조치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**제조업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**할 수 있도록 **지원대상을 제조기업으로 특화**하여 새롭게 추진된다.

□ 지원대상은 ①**업력 3년 이상의 비상장 제조 중소기업** 중 ②산업부 선정 **5대 영역 20대 신산업 분야***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며, ③**3년간 최대 1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**한다.

* 「산업기술 R&D 투자전략('19)」에 따른 전기수소차, 자율주행차,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홈, 첨단 신소재, 디자인융합, 스마트 산업기계 등 유망 투자분야(참고 1)

□ 사업의 주요 특징은 ①1단계 사업화 컨설팅 → 2단계 R&D의 **단계별 방식**으로 지원하고 ②「**사업 모델 기획 +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+ R&D**」를 **패키지**로 추진하며 ③**민간자본과 정부자금을 결합**한다는 점이다.

<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개요 >

○ **(사업목적)**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중소기업에 사업화 컨설팅과 R&D 자금, 모험자본(VC) 유치를 지원하여 신사업 시장진출 기회 제공

○ **(사업기간/총사업비)** '21년～'28년 / 1,924.6억원(국비 1,329억원)

○ **(지원대상)** 제조 중소기업 중 업력 ①3년 이상이면서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자체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하고 ③산업부 선정 20대 전략산업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④비상장기업

○ **(지원규모)** BM기획(1억원) → R&D지원(10억원/2년)

1 단계별 지원 방식

○ 본 사업은 기업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**1단계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**한 후, **결과에 대한 경쟁 평가**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**2단계 R&D를 지원**하는 **"단계별 지원"**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○ 1단계 지원기업은 1년간 **최대 1억원의 사업화 컨설팅**을 지원받고, 이후 **사업 포트폴리오·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실적 등 성과 평가**에 따라 **하위 20%를 제외**한 우수 기업의 경우에만 **최대 10억원**의 **2단계 기술개발 자금을 2년간 제공**받는다.

2 기술사업화 패키지 : 사업 모델 기획 +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+ R&D

○ 또한 동 사업 참여 기업은 **1:1로 개별 매칭**되는 **사업화 전문기관***을 통해 **지적재산권·인증·규제·회계 및 법률자문** 등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**사업 모델 기획**과 함께 **벤처캐피탈**을 통해 **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는 IR 전략 수립** 등 **투자유치 컨설팅**을 지원받고,

* 사업화전문기관 :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·기술거래기관·기술평가기관·시험인증기관·공공연구기관·법무법인·회계법인 등의 pool로 구성

○ 보유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**R&D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**할 수 있도록 하여 **사업 모델 기획에서 기술 고도화**에 이르는 **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**받을 수 있다.

3 민간자본과 정부자금의 결합

○ 한편 동 사업은 **정부지원금(10억원) 대비 70%(7억원)이상의 VC 투자 유치**를 2단계 R&D 지원대상 선정의 필수 조건으로 하여 **민간의 시각에서 사업성을 검증**받은 기획에 **정부의 사업화 자금을 더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**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

○ 따라서 지원 기업은 정부지원금 포함 **총 20억원 규모*의 R&D 자금을 확보**하게 되어, **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데스벨리를 극복**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**받게 된다.

* 정부 R&D 10억원 + 민간 VC 유치 7억원 + 자체부담금 3억원(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 규모의 33% 규모 자기부담)

** 국가연구개발사업 R&D 과제 평균 연구비 3.2억원('19, KISTEP) 대비 6배 규모

< 사업 추진절차 >



□ 동 사업의 전신인 "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"의 경우 민간자본을 통한 사업성 검증 및 상용화 단계의 사업화 지원이라는 특성에 기반해 **신규고용·특허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**한 바 있다.

구 분	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	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
출연금 10억원당 신규고용	12.76	4.46
출연금 10억원당 특허성과	4.4	3.15

* 출처 :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('18)

○ 금번 사업은 **민간투자 유치·상용화 R&D 지원** 등 기존 사업의 고유한 특징은 유지하되, **투자유치 조건 강화*·경쟁을 통한 단계별 지원** 등 사업을 정교하게 보완한 만큼 보다 높은 사업화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.

* 민간투자 유치규모 조건 : (기존) 정부출연금 대비 55% 이상 → (변경) 70% 이상

□ 김용래 산업기술혁신실장은 “우리 제조업은 그간 **양적 추격형 전략의 한계로 성장 정체에 봉착**하여 **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시점**이다”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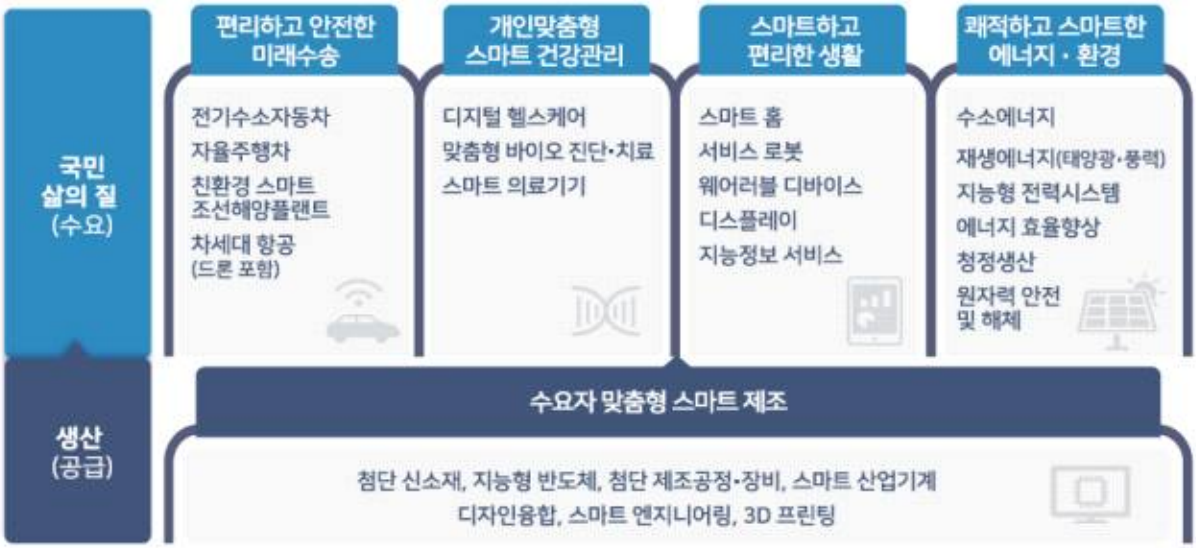
○ “**사업기획 컨설팅·민간투자 유치·R&D를 패키지로 지원**하는 동 사업을 통해,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**제조기업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**을 통해 **혁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**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은 ’21년 1분기에 1단계 사업 참여기업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수희 사무관(☎ 044-203-4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산업부 R&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



※ 에너지 부문에서는 청정생산 분야만 인정, 나머지는 제외

참고 2 기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대비 차이점

구 분	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	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
지원 분야	· 全분야	· 산업부 신산업.신시장 5대 영역, 20대 전략투자분야(에너지 제외)로의 사업전환 추진
참여 조건	· 중소, 중견기업	· 창업 3년 이상의 제조중소기업 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보유 · 비상장기업
평가요소	· 사업화 역량, 사업화 성공가능성, 민간투자유치 우수성, 사업화 기대효과	· (강화) 사업계획의 타당성, 시장진출 가능성, 민간투자유치금 사용계획 · (추가) BA 적절성, 선택적 지원항목 설계의 적절성
지원규모	· 15억 원 이내(2년)	· 1단계 : 1억원 이내 · 2단계 : 10억원 이내(2년)
투자유치	· 정부출연금의 55% 이상	· 정부출연금의 70% 이상
단계별 지원	-	· Stage & Gate 방식으로 1단계에서 2단계 탈락 기업 발생
기타	-	· BM 기획은 DIY 방식 지원

* DIY : Do It Yourself 혹은 Design It Yourself,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항목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